

## Index

- 1 [자유학기제 현장 돌보기]  
경북 영해중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
- 2 [자유학기제 현장 돌보기]  
지도교사가 말하는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
- 3 [교과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한문·과학 교과 지식도 키우는 미술 수업
- 4~5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서울 연천중의 '미술과 문화'
- 6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경기 퇴계원중의 하브루타 수업
- 7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경기 서신중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 8 [이달의 시사 논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논란
- 9 [교육 초대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선도하는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
- 10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리말 꿈터·올림픽 아카데미
- 11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  
선배와 함께하는 스트레스 해소 캠프



경북 영해중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

## “우리 고장 이야기 담은 책 만들며 애향심 키워요”

경북 영덕군 영해중의 자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의 '우리 고장 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둠별로 자신이 거주하는 고장에 대한 책을 만들어보며 글쓰기 실력을 기른다.

이 수업을 기획한 이미정 국어 교사는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책을 만드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 활용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높였다. 이 교사의 수업은 '2017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자유학기활동 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수업은 블록타임으로 묶인 매주 수요일 5~7교시에 총 17차시로 진행됐으며 △수업 안내 및 수행 계획 세우기(2차시) △정보 수집 방법 습득 및 우리 고장 정보 수집하기(5차시) △책 쓰기(3차시) △책 디자인하기(2차시) △책 제본하기(4차시) △완성된 책 돌려읽기(1차시)로 이뤄졌다.

### 우리 고장 매력 찾으며 정보 수집 능력 기른다

1~2차시는 '우리 고장 책 만들기' 수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배우는 시간이다. 교사가 먼저 우리 고장에 다양한 매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런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임을 설명한다. 수업의 목적을 파악한 학생들은 고장의 △유적지 △특산물 △고장 출신 위인 등을 찾는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모둠별로 진행한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모둠은 각각 어떤 주제에 관한 책을 만들지를 정한다.

이 교사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았는데, 학생들의 애향심을 키워주기 위해 이 수업을 기획했다”면서 “1~2차시에서는 모둠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자신도 몰랐던 고장의 매력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3~7차시에는 본격적으로 고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한다. 3~7차시는 과학과 기술·가정 교과와의 융합수업으로 진행됐다. 지역 한옥마을을 방문해 한옥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해보는 식. 학생들은 과학 및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책 △지역 신문 △지역 홍보 팸플릿 등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 수집 및 활용 역량을 기르게 된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폭넓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면서 “과학과 기술·가정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심화 지식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책에 들어갈 글 써보며 글쓰기 실력 '쑥'

8~10차시는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책에 들어갈 글을 쓰는 시간. 학생 1명 당 A4 1~2장 정도 분량의 글을 쓰는데, 모든 학생들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 수업에서 책 속지와 표지 붙이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경북 영해중 학생. 영해중 제공

이 글쓰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책 제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모둠 내에서 학생들은 각각 설명문·보고서·동화·광고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본다.

이때 국어 교과서의 '표현하기' '고쳐 쓰기' 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먼저 교과서를 통해 글쓰기 방법을 충분히 배운 뒤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 이 단계에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글쓰기 동기가 약하거나 역량이 다소 낮은 학생들은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 때문.

이 교사는 “평소 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글쓰기를 망설이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안이 완성되면 고쳐 쓰기를 한다. 먼저 글의 전체 구성상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문단·문장·단어 수준에서 고쳐 쓴 뒤, 마지막으로 맞춤법·띄어쓰기·문장 부호 등을 점검한다. 학생들은 글이 점차 나아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이 수업은 특정 차시에서 해당 활동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 8~10차시 수업은 '작가' 또는 '편집자'라는 직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 교사는 “진로관련 서적을 참고해 해당 활동이 어떤 직업과 관련되는지를 알려주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모둠별로 책 제본하며 협동심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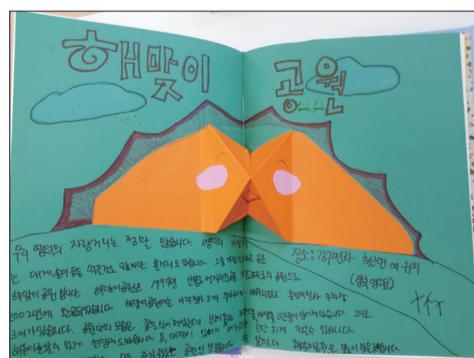
11~12차시는 책 디자인을 해보는 시간이다. 책의 속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신의 글을 옮겨 적고 △색연필 △색종이 △사진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속지를 꾸민다. 나아가 활동이 '책 디자인' '삽화'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배운다.

13~16차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책을 제본한다. 13~16차시는 '전문가 집단 모형'으로 진행된다. △속지 제본하기 △책 표지 만들기 △표지와 속지 붙이기 등의 각각의 제작 활동을 1~2명의 학생들이 각각 전담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책을 제작하는 것이다. 즉, 모둠원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의 책을 완성해내는 것. 학생들은 자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모둠의 책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협력의 가치도 배우게 된다.

17차시는 완성된 책을 다함께 돌려보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 이 교사는 “학생들이 책 쓰기부터 책 제본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해내는 것이 이 수업의 특징”이라면서 “자신이 완성한 책을 보며 학생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이 크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 자유학기제 현장 돌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북 영해중 학생들이 만든 책. 영해중 제공



교사가 말하는 자유학기제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이미정 경북 영해중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책 쓰기부터  
책 제본까지 스스로...  
성취감 커져요”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 고장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우리 고장을 알리는 책 쓰기, 책 디자인하고 제본하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이미정 경북 영해중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책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다”고 말했다.

‘생(生)글 생(生)글, 살아 있는 국어 시간!’ 수업을 이끈 이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책 속지 꾸미기 활동중인 영해중 학생들(왼쪽)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책, 영해중 제공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본교 자유학기제 교사 동아리(응답하라! 예주의 후예)가 계기가 됐다. 동아리 교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색다른 자유학기를 보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학교 맞은편에 있는 고려시대 문인 ‘목은 이색의 탄생 마을인 ‘괴시 한옥 마을’을 수업에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학교와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목은 이색이 누구인지 괴시 한옥 마을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괴시 한옥 마을’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 영덕 지역의 △훌륭한 문인 △유서 깊은 유적지 △특산물 등을 수업에 두루 활용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고장’에 대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매력을 알려주고 자부심도 일깨워주고 싶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글을 쓰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글쓰기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를 고민하던 중, 학생들이 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학교 선배’ ‘학교 선생님’ ‘다른

학교 친구들’ 등 구체적인 독자를 정해주었다. 학생들은 “정말 제 글이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되나요?”라고 물으며 신기해했고, 처음과 달리 적극적으로 글쓰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쓰기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동화나 ‘광고’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를 소개해주시기도 했다. 가령 영덕의 특산물인 시금치에 대한 글을 쓸 때 학생들은 시금치에 대한 설명문보다 동화를 쓰는 것을 더욱 즐거워한다. 실제로 한 학생은 ‘시금치를 먹고 번비를 고친 꼬마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었다.

수업의 효과는?

수업 전후로 우리 고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소풍으로 대구 근대골목에 다녀왔는데, 문화해설사가 “근대골목은 대구 독립운동의 발상지”라고 소개하자 학생들이 오히려 문화해설사에게 “우리가 사는 영해에서도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신돌석 장군이라는 항일 의병장도 계세요”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완성된 한 편의 글쓰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글쓰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 학생들은 적게는 A4 용지 1매 분량, 많게는 A4 용지 2매 분량의 글을 작성하고 고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글쓰기 역량을 높였다.

▶이미정 경북 영해중 국어 교사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수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분명히 전달하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독자를 명확하게 정해주어야 한다. 영덕과 영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고장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안내하는 것이다. 실제로 완성된 책은 학교 도서관이나 지역 전시회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학교 도서관에 책을 전시할 경우 수업을 같이 들은 학생들끼리 책상 메모지에 피드백을 써서 책 표지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자의 반응을 눈으로 볼 수 있어 학생들이 더욱 흥미로워한다.

교사가 수업 활동 결과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고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과정과 결과물이 여러 사람에게 소개된다는 생각에 더욱 적극적으로 책 제작에 참여한다. 친구들의 활동과정과 결과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협동심도 쌓는다.

책 제본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수업은 학생들이 쓴 글을 ‘양장제본’ 방법을 통해 책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본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다. 제본용 실과 바늘, 송곳, 접착제 등 기본적인 제본 도구들은 저렴한 편이나 그밖에 전문적인 제본 도구들은 다소 고가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생들에게 제본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제본 기술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제본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부족하다면 ‘북 바인딩’ ‘북 디자인’ 공방을 찾아가 직접 배워보는 것도 좋다.

제언

첫 시간에 수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왜 우리가 사는 고장에 대한 글을 쓰는지, 왜 책을 만드는지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면 학생들도 동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이다.

이 수업은 모둠수업으로 진행되는데, 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을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글쓰기에 능숙한 학생들만 한 모둠에 모이거나, 반대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만 모이는 일이 없도록 각기 다른 글쓰기 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교사가 지역 관련 책자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지역과 관련된 △팸플릿 △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골고루 모아두어야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진다.

**교과 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실었습니다.

대전 동대전중의 미술·한문·과학 교과융합수업

# 한문·과학에서 배운 내용으로 예술작품 만들어요

대전 동대전중은 지난해 2학기, 1학년을 대상으로 미술 수업에 한문과 과학교과를 융합한 교과융합 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통적 민화의 상징을 분석하고(한문) △현대적 상징을 담은 현대판 민화를 그린 뒤(미술) △이를 3D 홀로그램으로 제작하는 활동(과학)을 했다. 이번만이 아니다. 카메라와 눈의 작동 원리를 비교하여 탐구하고(과학), 이를 활용해 그림자 사진을 찍어 '사랑'을 표현하는 활동(미술)에도 참여했다. 대전 동대전중 구주희 미술교사는 지난해 같은 학교에 재직했던 김영미(한문), 김명민(과학)교사와 함께 해당 수업을 꾸렸다. 구 교사는 "학교 내 협의체를 통해 학생의 특성과 교내의 환경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타 교과 교사들과의 지속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융합수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수업은 미술, 한문, 과학으로 분리된 교과를 효과적으로 융합했다는 평가를 받아 교육부가 주최한 '2017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미술·한문·과학 교과융합수업 수업지도안

대상 중1	과목 미술, 한문, 과학	차시 12차시
학습 주제	[1~8차시] '전통 민화, 3D 홀로그램으로 행복을 전하다' [9~12차시] '사랑과 우정에 대하여 그림자 사진 찍기'	
학습 목표	[1~8차시] ▶ 전통 민화의 상징 속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현대적 상징물을 활용하여 현대판 민화를 제작할 수 있다. ▶ 필름을 이용하여 3D 홀로그램으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9~12차시] ▶ 카메라의 특징을 알고 활용하여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 ▶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림자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1~8차시] 스마트 패드, PVC 필름(0.3m), 채색도구, 검정색 하드보드지, 데스크탑 [9~12차시] 스마트폰, 계획서	

1~8차시 수업 주제	전통 민화, 3D 홀로그램으로 행복을 전하다
1차시	-수업 주제 및 흐름 안내 -전통 회화의 특징 이해하기 -전통적 민화의 소재와 표현 방식 이해하기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현대의 다양한 상징의 의미 분석 ·현대적 상징을 이용한 민화 구상
2~3차시	▶[2차시] 모동별 계획 세우기 -전통적 민화 속 상징이 추구하는 '행복'의 미 생각해보기 -누구에게 현대판 민화를 선물할 것인지 고민해보기 -현대적 상징의 의미를 포함한 민화 스케치 ▶[3차시] 현대판 민화 제작하기 -현대판 민화 그리기
4~8차시	▶[4차시] 빛의 굴절에 대한 과학적 원리 탐구, 3D 홀로그램 이미지 제작 원리 탐구 ▶[5~7차시] 모동별 3D 홀로그램 작품 제작하기 -직접 그린 민화를 사진으로 촬영 -촬영한 이미지를 편집 -편집한 이미지로 3D 홀로그램 제작 ▶[8차시] 모동별 작품 평가 -작품 설명 -상호 평가를 통해 우수작품 선정

교사의 도움말

먼저 전통 민화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좋다. 가령 소나무와 까치가 그려진 민화를 보며 소나무 송(松)은 보낼 송(送)과 발음이 같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길조이므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라'는 뜻을 해석하는 식.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한문교사가 미술수업에 방문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해두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현대의 상징물을 찾아 '나만의 민화'를 그리게 하면 수업 집중도가 훨씬 높아진다. 예를 들어 시험에 착 붙는다는 의미를 가진 상징물인 '참쌀떡'과 답을 꼭 찍어낸다는 의미를 가진 상징물인 '포크'를 함께 그려 현대적인 의미의 나만의 민화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그린 민화를 3D 홀로그램으로 제작해본다. 그림을 검은 색지위에 올려두고 각기 다른 여러 각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해당 그림을 연속 촬영한다. 연속 촬영된 그림 파일을 합쳐 gif 파일로 편집하고, 스마트폰으로 해당 동영상 재생 시킨다. 이때 피라미드 형태의 카메라 필름지를 스마트폰 위에 거치해두면 빛의 굴절을 통해 '3D 홀로그램'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독특한 예술창작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9~12차시 수업 주제	사랑과 우정에 대하여 그림자 사진 찍기
9차시	-카메라의 원리와 눈의 원리를 비교하여 이해하기 -'나' '친구' '가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구상하기
10~12차시	▶[10차시] 사랑과 우정에 대한 그림자 사진 촬영하기 -야외활동을 통해 소재와 공간 탐색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작품 제작 ▶[11차시] 작품 내용 정리 및 발표하기 -사진에 담긴 주제와 의미를 기록 -작품 감상과 평가 ▶[12차시] 그림자의 숨겨진 이면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기 -그림자아트 감상, 의미 분석

교사의 도움말

9~12차시에 진행되는 그림자 사진 찍기 수업은 학생들의 미술적 표현능력을 신장시키고, 과학적 교과지식도 깨닫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운동장과 같은 햇빛이 있는 야외에서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그림자, 어머니가 자식을 업고 있는 그림자 등 그림자로 사랑과 우정을 스스로 연출해본 뒤 해당 그림자를 카메라로 찍는다. '빛'과 달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림자'로도 긍정적인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고의 틀을 바꿔보기 위해서다. 사진 촬영 단계에서는 카메라 설정을 조작함으로써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조리개를 많이 열면 그만큼 카메라에 빛이 많이 들어와 사진이 밝게 찍히고,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조절하면 셔터가 열려 있는 긴 시간 동안 빛이 많이 들어와 마찬가지로 사진이 밝게 찍힌다는 것을 알려주는 식. 이를 통해 학생들은 카메라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카메라 조리개의 작동 원리,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인간의 눈의 구조도 파악해본다.

교사의 코멘트

미술교사가 학생들에게 한문·과학 교과지식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수업방식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어렵다. 학생들 스스로 한문·과학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예술창작활동에서 활용되는지 파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3D 홀로그램' 제작 단계에서는 '빛의 굴절 원리' '상이 맺히는 원리' 등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설명하는 과제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기면 학생들이 과학교사와 직접 논의를 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교사와 사전협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8차시 수업에서 진행되는 '3D 홀로그램' 제작은 컴퓨터를 통한 이미지 편집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려면 먼저 교사가 진행 방법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하면 좋다.

조별로 조장을 뽑아 교사가 조장에게 먼저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다시 조장이 조원들에게 설명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효율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협동심도 길러줄 수 있다.

▶구주희 대전동대전중 미술 교사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저 그림 못 그리는데 어떡하죠?” “그리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적 재능이 남다른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많은 학생들이 미술 수업을 부담스러워 한다. 권정민 서울 연천중 미술 교사는 학년 초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조사할 때마다 쏟아지는 학생들의 하소연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원인을 찾다가 미술 시간을 ‘무엇인가 그려내야만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미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꿔주고 싶었던 권 교사는 회화 대신 점토를 활용한 공예를 3학년 학생들의 첫 실기 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시각문화에 대해 배우는 단원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점토로 음식 모형을 만드는 실기 수업을 거꾸로 교실로 진행했다.

권 교사는 “부드러운 촉감의 클레이 점토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지점토를 가지고 놀면서 학생들이 미술로 ‘힐링’하는 경험을 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 권정민 서울 연천중 미술 교사의 거꾸로 교실 마음대로 만지고 주무르며 이해하는 ‘미술과 문화’

수업 개요

교과	미술	학기	3학년 1학기	차시	6차시 이상
단원	1-4. 우리 주변의 시각문화 1-5. 서로 다른 시각문화				
주요 핵심성취기준	[미9121-1] 시각문화에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안다. [미9122-1] 시각 이미지를 통해 사회문화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을 안다.				
수업 내용	1. 시각문화와 공공미술 이해하기 2. 조별로 특정 나라의 문화적 배경 조사한 후 대표 음식 모형 제작하기 3. 음식 모형 판매하기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지점토를 활용해 음식 모형을 만들고 있는 학생. 연천중 제공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 1차시 수업 전에 디딤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1차시] 시각문화와 공공미술 이해하기

이론 학습은 디딤영상으로 대체한다. 교사는 디딤영상을 통해 시각문화와 공공미술의 개념, 특징, 사례 등을 설명한다.

본 수업에서는 디딤영상을 통해 본 내용을 학습지에 정리하는 조별 활동을 진행한다. 시각문화 및 공공미술의 개념과 특징을 간략히 글로 정리한 후 벤다이어그램을 통해 둘의 관계를 나타내 본다. 또 각자가 생각하는 시각문화와 공공미술의 의미를 비주얼씽킹(정보와 생각을 글, 그림 등으로 시각화해 표현하는 것)으로 표현해 본다.

학생들은 각자 활동지를 작성한다. 하지만 활동지에 채울 내용은 조별 토의·토론을 통해 구상하며, 학생들은 서로 가르쳐주고 도와가며 활동지를 완성한다.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거꾸로 교실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교실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 교사의 관여는 최소한으로



권정민 서울 연천중 미술교사

Q. 이 수업의 목적은?

무작정 미술을 부담스럽게만 느끼는 학생들에게 미술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 시각문화의 대표 사례인 음식을 소재로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주 먹는 각 지역의 여러 음식에도 모두 미술이 깃들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인간의 삶과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미술을 배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

다양한 시각문화의 사례 중 특히 음식을 수업 소재로 활용한 것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이 나이 때 학생들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딱딱할 수 있는 자료 조사 과정도 마치 맛집 탐방을 하는 것처럼 재밌게 받아들였다.

Q. 수업 차시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6차시 수업으로 진행했지만 학교의 제작 여건, 학생들의 제작 속도에 따라 제작 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 최대 8차시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업의 전체 차시보다는 수업 간 연결성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2~3시간을 블록 타임으로 엮어 실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료나 도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 제작 중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다음 시간에 제작을 이어갈 경우 점토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문제가 여의치 않다. 부득이하게 실기 시간을 끊어서 운영해야 할 경우 정해진 공간에 미완성 작품을 모아두고 교사가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다. 관리를 학생들에게 맡길 경우 점토를 잘못 보관해 갈라지고 깨지거나 아예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Q. 디딤영상은 어떻게 만드나?

이 수업의 디딤영상은 매우 간단하다. 수업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파워포인트(PPT)를 화면에 띄워 놓고 교사가 육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전부다. 설명할 내용이 많지 않아 영상의 길어도 5분 내외면 충분하다. 컴퓨터 화면을 소리와 함께 녹

**[2차시] 시각문화의 실제 사례 이해하기**

2차시는 시각문화의 실제 사례 중 하나인 '음식'의 모형을 제작해보기에 앞서 시각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다. 교사는 학생들과 간단하게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지역이나 환경, 역사, 전통에 따라 시각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시각문화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음식도 시각문화중 하나임을 설명한다.

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은 조별로 원하는 나라 한 곳을 선정한 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기후, 문화, 종교, 지리적 특징 등 그 나라의 시각문화에 영향을 준 만한 배경 요소를 조사한다. 교사는 적절한 검색 키워드를 알려주거나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를 알려주어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다.

조사가 끝나면 조별로 자신이 조사한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잘 드러나는 대표 음식을 3가지 이상 선정하도록 한다. 그 다음 각각의 음식을 어떤 모형으로 나타낼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아이디어 스케치는 모양 뿐 아니라 색깔, 사용할 재료 등을 상세히 담을수록 높게 평가한다.

**[3~5차시] 음식모형 제작하기**

2차시에 완성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점토, 클레이 점토, 성형 도구, 채색 도구 등을 사용해 음식 모형을 제작한다. 음식 모형은 조별로 3개 이상 만들도록 하는데, 학생들의 제작 속도에 따라 수업 차시를 조절할 수 있다. 제작에는 대체로 3~4차시 정도가 소요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점토와 클레이 점토의 속성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고, 각 재료의 특성에 맞는 제작채색보관 방법, 성형 도구 사용법 등을 알려준다. 학생들이 제작에 들어가면 교사는 반을 돌리보며 유난히 속도가 느리거나 어려워하는 조를 돕는다. 이때, 교사가 직접 제작을 돕지는 않으며 선배나 다른 반 학생들의 작품 또는 제작 과정을 찍은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표현해야 할지 힌트를 준다. 학생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교사는 '조별로 상의해서 제작 과정을 분업하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음식 모형 제작이 끝나면 교사는 다음 시간에 음식 모형을 상차림해 판매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안내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상차림 아이디어나 소품 등을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한다.

**[6차시] 음식 판매하기**



조별로 자신들이 만든 음식과 어울리는 상차림을 한다. 학생들은 해당 음식을 먹기에 적절한 테이블 세팅을 연구하거나 해당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품을 함께 배치하는 등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상을 차린다. 상차림 시간이 길어지면 학생들이 다소 풀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차림은 10분 내에 끝내도록 한다. 상차림이 끝나면 조별로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는 메뉴판을 만들고 가격을 책정해 음식 옆에 진열한다.

이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져 돈을 2만원씩 나눠 주고 서로 음식을 사고팔도록 안내한다. 판매는 음식 모형을 직접 사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골라 그 값만 지불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조원 중 2명이 먼저 학습을 돌며 원하는 음식을 고르는 동안 남은 2명은 자신들을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음식에 관한 문화적 배경 등을 설명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경꾼과 설명하는 사람의 역할을 교대한다. 학생들은 음식 모형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친절함 설명, 상차림 등을 고려해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고른다.

모든 학생들의 구매가 끝나면 학습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조를 '판매왕'으로 선정한다. 판매왕에 뽑힌 학생들은 동료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추후 평가시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수업 소감을 나누며 미술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 교사는 '미술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미술을 배우는 이유도 단순히 미술적 기법을 익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를 읽고, 문화 속에 들어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한 학기 동안 총 3개의 실기 과제를 수행하며, 각 과제는 2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음식 모형 만들기 3개의 실기 과제 중 하나로, 이 과제에 매겨진 수행 평가 배점은 25점이다. 표현 점수와는 별개로 포트폴리오 및 태도 점수를 2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포트폴리오 및 태도 점수는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한 학기 전체를 놓고 누적 평가한다. 즉, 3개의 실기 과제에 대한 평가와 한 학기 동안의 포트폴리오 및 태도 평가를 종합해 100점 만점으로 수행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수행평가 채점 기준 예시**

- 1) 표현(25점)
  - 주제의 특징, 의도, 목적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설정했는가
  - 적절한 표현 방법을 탐색하였는가
  -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는가
  - \* 동료평가를 반영할 경우 교사의 평가는 23점을 만점으로 하고 이에 동료평가 점수 2점을 더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 2) 포트폴리오 및 태도(25점)
  - 결과물의 전체 수업 과정이 체계적이고 빠짐없이 반영되었는가
  - 결과물의 완성도와 제작 능력이 우수한가
  - 수업에 열의가 있고 수업준비가 성실한가
  - \* 포트폴리오 미제출 혹은 수업태도가 매우 불량할 경우 0점을 주고, 포트폴리오 제출 기한을 하루 넘길 때마다 0.5점씩 감점한다.

미래교실네트워크([www.futureclassnet.org](http://www.futureclassnet.org))에서 더 다양한 거꾸로 교실을 만나 보세요. 

화하는 '닥터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간단한 영상이지만 학생들에게 디딤영상을 꼭 보고 오도록 했다. 음식을 통해 시각문화와 미술의 관계를 짚어보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기(제작) 이전에 이론 학습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수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학생들이 수업 전에 디딤영상을 보고 오지 않았을 경우 1차시 수업 때 이어폰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책과 태블릿 PC를 주어 디딤영상을 모두 본 후에 수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Q. 수업중 자료 조사는 어떻게?**

자료 조사 수업 시간에 한해 학생들에게서 수거한 스마트폰을 돌려줬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 2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만약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는 학교의 경우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Q. 제작 과정에 교사가 얼마나 관여하나?**

거꾸로 교실로 수업을 해 오며 느낀 점은 수업의 많은 부분을 학생들에게 맡기고 학생들 스스로 알아서 잘 따라온다는 점이다. 이번 수업의 제작 과정도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에 맡겼다. 물론 제작에 필요한 기초적인 설명은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제작은 학생들이 조별로 상의해 완성해갈 수 있도록 했다. 혹시 여러 조가 같은 음식을 만들겠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조정하지 않았다. 같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학생들의 표현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모두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제작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조에는 예시를 보여줬지만 스스로 곧잘 만드는 조에는 별도의 예시도 보여주지 않았다. 모방심리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의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Q. 다른 교사들을 위한 제언**

수업 중 특정 나라의 지리적 특징이나 종교적 배경에 대해 조사하는 부분은 세계사 교과와 연관되는 부분이고, 음식 판매는 시장 경제와 합리적인 소비를 다루는 일반 사회와 연관이 깊다. 사회나 세계사 교과와 연계한 융합수업으로 진행하면 보다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수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기술적인 것대로만 학생들의 결과물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음식 모형 만들기가 실기 수행 과제 중 하나인 만큼 결과물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만들기의 경우 완성작 사이의 변별력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만들기 과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미술과 문화, 미술과 우리 삶의 관계를 이해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지 바란다.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수업 혁신의 방식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하브루타(chavruta), 비주얼 씩킹(Visual Thinking), 소프트웨어(software)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혁신해나가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경기 퇴계원중 사경희 교사의 하브루타 수업

어려운 한자는 ‘썩’  
가족의 소중함은 ‘썩’



모둠별로 모여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하는 경기 퇴계원중 학생들. 퇴계원중 제공

10월호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하브루타 수업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공부법으로 ‘썩’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버이날 외에 부모님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합니까?”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경기 퇴계원중의 한문 수업시간. 학생들은 썩과 함께 이와 같은 질문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브루타 수업은 2명씩 썩을 지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론하는 수업.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직접 만든 질문을 썩에게 던지고, 썩의 대답을 경청하며 다양한 시각을 기른다. 이후 모둠별로 모여 하나의 질문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경희 퇴계원중 수석교사는 1학년 1학기 한문 ‘3. 가족의 구성’ 단원에서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했다. 하브루타 수업을 꾸준히 연구해온 사 교사는 이 단원을 포함해 대부분의 수업에 하브루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친구들과 게임하듯 한자 공부

본격적인 하브루타 수업에 앞서 학생들은 ‘가족의 구성’ 단원에 나오는 한자의 음과 뜻, 단어, 문장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하브루타의 가장 큰 목적인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가족의 구성’ 단원에 나오는 한자의 음과 뜻이 적힌 ‘한자 자석 카드’를 활용해 모둠별 게임을 하며 한자를 익힌다. 예를 들

어교사가 “형(형)을 의미하는 한자 자석 카드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재빨리 ‘兄(형)’이라고 적힌 카드를 가져와야 하는 식이다. 많은 카드를 가져온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학생들은 이를 통해 평소 어렵게 느꼈던 한자의 음과 뜻을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다.

그다음에는 각각 가지고 있는 한자 자석 카드를 활용해 가족과 관련된 한자 어휘를 만들어본다. 예를 들어 교사가 “형과 아우를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兄(형)’ 카드와 ‘弟(제)’ 카드를 찾아 ‘형제(兄弟)’라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식이다. 만들어낸 단어들을 바탕으로 ‘兄弟姊妹 同氣而生(형제자매 동기이생)’과 같은 한문 문장을 만들고, 해당 문장을 친구들과 함께 해석해보며 ‘형제와 자매는 한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는 의미라는 것을 파악한다.

사 교사는 “하브루타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한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기발하다고 칭찬해준 뒤 함께 이야기하며 올바른 해석으로 바로 잡아준다”면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해당 한자와 문장을 더욱 오래 기억할 수 있고, 한자 공부에 재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직접 질문 만들고 경험 얘기하며 몰입도↑

가족과 관련된 한자 단어, 문장, 지문 등을 배웠다고 해서 교과 성취 기준을 모두 달성한 것은 아니다. 한문 교과의 핵심 역량에는 ‘인성 역량’이 포함되기 때문. 사 교사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이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질문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학생들은 각자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나요?’ ‘가족과 한일 중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만들어내고, 썩에게 해당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들은 썩은 방금 들은 이야기와 관련된 후속 질문을 곧바로

떠올려 다시 질문하는 것이 규칙이다. 이와 같은 규칙이 없다면 자신이 만든 질문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하느라 썩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 교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과정에서 좋은 질문이 형성된다”면서 “학생들은 진지하게 썩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썩과 함께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주고 받은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질문 하나를 꼽는다. 이후 4명이 한 모듬을 이뤄 모듬별 대표 질문 하나를 선정한 뒤 해당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함께 나눈 이야기는 커다란 종이로 된 ‘모듬판’에 정리해 적고, 모듬판을 칠판에 붙여 반 전체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 교사는 “모듬별로 이야기를 나누면 썩과 함께 이야기할 때보다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 가족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꺼내 다른 친구들에게 털어놓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면서 “평소 한문 수업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수업 자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매 시간 조금씩, 꾸준히 한다면 성공적인 하브루타 가능”

Q.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하브루타 수업을 접해보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질문을 만드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 이때 교사는 질문을 직접 만들어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간단한 ‘힌트’ 정도만 주는 것이 좋다. 만약 학생이 교사에게 어떤 질문을 했다면, 바로 답을 해주지 말고 “이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누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해볼까?”라고 말하며 해당 질문을 반 전체와 공유하는 식이다. 학생들끼리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학생들에게 아무런 주제도 주지 않고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의미 있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라’는 식으로 교과서의 텍스트와 학습목표를 고려한 주제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Q. 수업의 효과는?

실제로 하브루타 수업을 마친 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평가지를 받았다. 학생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수업에 보다 집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친구의 질문에 대답해주기 위해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해본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하면서 공부하니 일방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한 시간 내내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가며 주도권을 쥐는 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몰입도가 확실히 깊어진다. 한문에 대해 어렵게 느꼈던 학

생들도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문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다.

Q. 하브루타 수업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하브루타 수업’은 특별히 새로운 수업 방식을 고안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이다. 그때그때 배운 것을 썩에게 설명하게 하고, 질문을 만들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는 학생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 질문들을 만드는 습관을 길러 주고,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한다. 또한 수업 시간마다 질문 한두 개 썩이라도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이야기해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경희 경기 퇴계원중 수석교사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한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 경기 서신중 윤태영 교사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축구 영상으로 영어 공부하며 흥미 UP 문법 실력 UP!

경기 서신중의 한 교실. 학생들의 눈은 해외 축구경기에, 귀는 그 축구경기를 중계하는 영국인 캐스터의 말에 집중된다. 윤태영 경기 서신중 영어 교사가 기획한 'EPL(English Premier League) English Grammar(이하 EPL 영문법)'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윤 교사는 한국 축구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본 뒤 그와 관련된 기사를 읽는 수업을 기획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과 같은 축구선수들이 활약하는 영국 프로축구 경기 영상과 관련 기사들이 주요 수업 교재. 동영상과 기사에 담긴 내용을 통해 축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음과 동시에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EPL 영문법 수업은 축구와 영어에 관심 있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일종의 방과 후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는 MC가 되어 영상과 기사에 담긴 영문법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학생들이 직접 MC의 대본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MC의 진행 모습은 나머지 학생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 처럼 만든다. 축구 동영상과 기사 속 영문법을 배우면서 축구에 대한 지식과 문법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MC, 작가, 영상 촬영 및 편집과 관련된 진로 탐색도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인 것이다.

### 현지 축구 해설 들으며 실생활 표현 익힌다

영상을 보기에 앞서 교사는 먼저 EPL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영국 프로축구팀인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전반전에 골을 넣었다거나,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골을 넣지 못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에게 뒤이어 볼 영상에 대한 배경지식과 흥미를 심어주는 것이다. 이후 한국 선수가 EPL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며 현지 해설가들의 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어로 된 축구 해설이 아니라 현지 해설가들의 영어 해설이 담

긴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콩글리시(한국식으로 잘못 발음하거나 비문법적으로 사용하는 영어)가 아니라 원어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를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중 터치라인 부근에서 공격을 하면서 골문 근처에 있는 같은 팀 선수에게 볼을 보내는 패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센터링(centering)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를 크로스(cross)라고 표현한다는 것, 머리를 이용하는 동작을 의미하는 헤딩(heading)의 올바른 표현은 헤더(header)라는 점 등을 알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해설가들이 골이 아쉽게 들어가지 않은 상황을 두고 "unlucky(불운한)"라고 표현하거나 골이 완벽하게 들어간 상황을 두고 "brilliant(훌륭한)"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영어권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배울 수 있다.

윤 교사는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실제 원어민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등을 접하며 올바른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영어 어휘와 회화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 용어를 배울 수 있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문법 공부와 진로 탐색을 동시에

영상을 본 뒤에는 영상의 내용과 관련된 영어 기사를 읽는다. 해당 수업의 주제를 '수동태'로 정했다면, 영어 기사에 포함된 수동태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해석을 한 뒤 수동태의 형태나 동사에 대한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이다.



'EPL 영문법' 수업에서 만든 문법 강의 동영상의 한 장면. 서신중 제공

윤 교사는 "일반적인 영어 문법 강의는 학생들이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는 반면, 축구라는 흥미로운 주제와 연관된 영상과 기사를 통해 공부하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문법을 익힐 수 있다"고 말했다.

축구 영상과 기사를 통해 영어 표현과 문법을 배우는 과정은 영상으로도 만들어진다. 교사는 학생 한 명과 MC를 맡아 다른 학생들에게 영상과 기사를 보여주며 그 안에 담긴 표현이나 문법에 대해 설명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각각 △작가 △영상 촬영 △영상 편집 등을 맡아 직접 프로그램 진행 대본을 작성하고 영상을 촬영·편집해 일종의 '문법 강의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평소 희망하던 분야의 진로를 체험해볼 수 있다.

윤 교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EPL 영문법 동영상은 일반 문법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면서 "영상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은 물론, 수업 시간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문법을 친근하고 쉽게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최송이 기자 songi21@donga.com

###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 "지나치게 어렵고 속도 빠른 영상은 피해야"

#### Q.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영어 수업에서 자료를 활용할 때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편집된 것보다는 실제 원어민들의 자연스러운 영어 대화가 담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학습용으로 편집된 영상이나 텍스트들은 부자연스럽거나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영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인 캐스터가 중계하는 축구 영상, 미국인 기자가 작성한 기사 등 원어민들이 직접 만든 자료들의 경우 중학생 수준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영상의 경우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너무 어렵거나 원어민들의 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면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Q. 수업의 효과는?

영어로 된 영상은 영어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계기가 된다. 특히 축구와 같이 수업 시간에 쉽게 접하지 못한 색다른 주제에 대한 영상을 보면 신선함을 느끼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문법 수업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원어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들을 접하며 올바르게 배우는 유용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다. 듣기 실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고, 영어 어휘와 회화 실력도 기를 수 있다. 영상과 기사를 통해 축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들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이 수업의 특징이다.

#### Q.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영상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해주는 것은 물론, 학습적인 측면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이처럼 영상이 좋은 학습 도구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나아가 영상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축구라는 주제를 수업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축구와 관련된 영상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상해보는 식이다.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을 바탕으로 수업 자료를 어떻게 제작할지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태영 경기 서신중 영어 교사

이달의 시사·논술

'이달의 시사 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달의 시사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와 관련교과, 참고서적, 지도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논란 강력 범죄 저지른 청소년, 처벌해야 하나? 보호해야 하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소년법을 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일반 범죄자보다는 다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려 해당 청소년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법.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죄를 지은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만 선고받고(단,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의 징역형 가능),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0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말자는 취지의 소년법. 이런 소년법 폐지 여론이 생겨난 배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살인을 자행하거나,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청소년들은 소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분이 생겨난 것.

소년법 폐지 논란이 불거진 배경과 소년법 폐지를 두고 현재 벌어지는 논란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자.

## 소년법 폐지 여론,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가 원인

소년법 폐지 논란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의 만 17세 청소년이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시켜 유기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세상에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성인이라면 무기징역형을 받을 중범죄지만 이 사건의 주범 김모 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라는 이유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특히 만 18세의 공범 박모 양의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피고인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

는 올해 12월 전 재판이 3심까지 종결돼야 한다"고 밝히자 국민들의 공분이 더욱 커졌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소년법을 악용해 가벼운 형량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런 청소년에 대한 감형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지난달, 부산과 강릉에서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같은 또래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부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숨방망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된 것이다.

## 소년법, 강력하게 처벌해야 vs 소년법은 교화해야 할 대상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만큼 소년법을 폐지해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잔인한 범죄 사례를 보고 아무 죄의식 없이 모방하는 경우도 많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능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소년법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사회가 교육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소년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년법을 폐지하게 될 경우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는데다가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도 실제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 한 법조계 전문가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

는 있겠지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잇따른 청소년 범죄로 현행 소년법 조항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잔인한 범죄에는 현행 소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법에 대한 보호나 선도를 하는 규정은 그대로 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외, 처벌은 강력하게! 보호는 확실하게!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시각으로 청소년 범죄를 바라볼까?

일본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소년법에 대한 처벌이 다소 강력하다. 일본은 청소년 범죄가 반복해서 일어나자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낮추고, 형량도 점차 강화해 만 18세 미만 범죄자도 최대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이 강간, 살인 등의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범죄자와 똑같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도 선고한다.

이렇듯 소년법을 일반 범죄자와 다를 바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소년법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소년법의 기본 취지인 '청소년에 대한 교화와 교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본의 경우 강력 범죄자는 용의자 단계에서부터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데,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신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보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강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 범죄자와 소년범의 차별이 없지만, 소년범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 국내의 한 범죄전문가는 "소년법을 일반 범죄자와 동등한 기준으로 대하면 소년법에 대한 교정·교화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면서 "아직 나이가 어린만큼 향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 생각해볼 문제

1. 최근 도를 넘은 청소년 강력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배경을 조사해 보자.
2. 청소년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방안을 생각해 보자.
3.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지 제안해 보자.

## 교과서 찾아보기

기술가정1 III. 청소년의 자기 관리 3.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  
기술가정2 I. 가족의 이해 1.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도덕 II. 우리·타인과의 관계

## 참고자료

KBS1 라디오, 2017년 7월 14일자, "소년법, 처벌 강화보다 환경 개선 노력 필요"  
YTN, 2017년 9월 7일자, 논란의 '소년법',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 지도법

소년법 폐지 논란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도 관심이 높은 이슈입니다. 소년법 폐지 논의에 앞서 최근 청소년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의 및 토론 활동을 통해 청소년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개인적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공유해보거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법률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 제도, 각종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청소년 강력 범죄 실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의 한계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소년법 개정 방향 및 세부방안에 대한 심층 토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훨씬 넓고 깊은 시각에서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지미 제주 서귀포여중 한문 교사



교육 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뉴스 형태로 배포되는 것. 인터넷과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별해내고,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 주목받는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를 활용해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21세기 핵심역량으로 보고 이를 함양시키기 위한 청소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초·중등 교과서에 담길 미디어 리터러시 단위 모형을 최근 개발했다. 이 개발 과정의 정책연구를 주도한 인물은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정 교수는 미디어 교육, 신문 이해 교육, 뉴스 리터러시 교육 등과 관련한 초·중등학교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온 미디어 교육 전문가다. 정 교수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묻고 들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선도하는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

정보 홍수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올바른 안목 키워야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 교육부의 정책연구인 '초·중등 교과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단위 개발 연구'를 주도했다.

21세기 핵심역량과 직결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 환경에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다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유해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필수 역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주목받는 것도 이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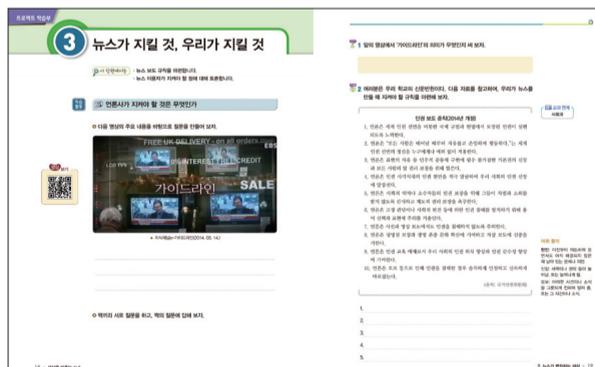
정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를 활용해 표현한 뒤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서 "이는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 21세기 핵심역량과 직결된 것으로, 시민성과 문화적 역량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즉, 특정 뉴스를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뉴스를 직접 찾아보고(접근) △해당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한편 △그것이 특정한 관점만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한 뒤(비판적 이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자신만의 뉴스를 만들어보며(활용) △이를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것.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더욱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와 사회 현상을 직접 분석, 평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정 교수는 말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의사소통능력의 일부로서 디지털 기기와 기술, 정보와 미디어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기본적인 학

습능력이 배양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학생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현선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개발한 미디어 리터러시 중등 교과서 모형의 일부. 출처: 교육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금 하고 있는 수업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세요"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정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개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서 단위 모형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뉴스' 단원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이 단원은 '뉴스는 우리에게 현실

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뉴스 생산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는 무엇인가' 등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된다. 학생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생 주도의 참여형 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평소 흥미를 갖고 있는 주제를 생각해보고,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최근 3일간의 뉴스를 직접 검색해보는 것. 해당 뉴스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거나, 보도윤리가 잘 지켜진 뉴스인지를 평가해보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해나간다.

정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는 주로 △의미 이해와 전달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 △감상과 향유 △미디어 기술 활용 △정보 검색과 선택 △창작과 제작 △사회·문화적 이해 △비판적 분석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있다"면서 "교사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계획할 때는 이들 목표 중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출지, 학생들이 수업을 들은 이후 획득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이 무엇일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현재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면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과 쉽게 연결지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를 다루는 수업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수업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길 바랍니다."(정 교수)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꿈터' 체험 프로그램

# “올바른 우리말, 체험으로 재밋게 익혀요”



우리말 꿈터 중 <출발! 우리말 여행> 체험 공간의 모습. 지역 방언으로 개사된 노래를 불러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 제공

청소년들의 언어문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무분별한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 줄임말 남발, 띄어쓰기 무시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국립국어원은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우리말을 익힐 수 있는 체험 공간 '우리말 꿈터'를 지난해 10월

개관했다. 우리말 꿈터는 4개의 체험 공간(△도전! 사전 탐험대 △출발! 우리말 여행 △안녕! 우리말 △나도 우리말 지킴이!)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공간에서는 주제별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도전! 사전 탐험대’에서는 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한편 사전을 활용해 십자말풀이를 해 볼 수 있다. ‘출발! 우리말 여행’에서는 그림으로 표현한 속담을 알아맞혀 보거나 지역 방언으로 개사한 노래를 작은 노래방에서 불러 보며 각 지역 방언의 특색을 느껴본다. 언어 예절을 주제로 한 ‘안녕! 우리말’ 체험관에는 틀리기 쉬운 높임말과 인사말을 바르게 고쳐 보는 체험, 인터넷에 착한 댓글을 달아보는 체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엮어서 전하는 체험이 마련돼 있다. ‘나도 우리말 지킴이!’에서는 소중한 우리말을 주제로 어려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본다. 또 우리말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에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직접 해결해 본다. 헛갈리는 띄어쓰기를 몸

으로 뛰는 게임을 통해 쉽고 재밋게 익힐 수도 있다.

사전에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2명의 전담 강사로부터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주말 및 관공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진행되며 2시간 가량 소요된다.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1회차(오전 9시 30분), 2회차(오후 1시 30분) 교육 중 원하는 시간을 골라 사전에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한 회당 30명 이내로 참가가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문의 02-2669-9728

**체험활동 연관 직업**

**언어학자:** 언어학자는 특정 언어나 언어집단의 구조, 변천 및 발달과정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언어에 대한 감각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언어에 대한 전공 지식 외에도 문학, 사학, 철학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된다.

● 서울올림픽기념관의 '올림픽 아카데미'

# “올림픽을 위해 일하는 내 모습, 그려봐요!”



올림픽 아카데미에 참여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 서울올림픽기념관 제공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는 겨울 개막한다. 평창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 올림픽. 하지만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이미 1988년에 서울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이 때 서울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며 문을 연 곳이 바로 서울올림픽기념관이다.

서울올림픽기념관은 청소년에게 올림픽의 가치를 바로 알려주고, 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로 운영한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이나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생긴다면 서울올림픽기념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해보자.

교육 프로그램 '올림픽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제 스포츠 조직과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서울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직접 국제경기연맹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올림픽 게임을 만들거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로운 게임을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새로운 게임을 친구들 앞에서 시연해 보이며 스포츠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것.

1시간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교육 프로그램인 '올림픽에서 길을 찾다'에 참가한 학생들은 고대 올림픽의 기원과 의미, 근·현대 올림픽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과 서울올림픽의 메달, 기념 주화 등 기념품이 전시된 공간 등을 관람하며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한다. 이후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직접 소개하고 인터뷰하는 체험을 통해 올림픽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관은 이밖에도 올림픽과 관련

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금요일에 진행되며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문의 02-410-1351

**체험활동 연관 직업**

**스포츠기록분석원:** 각종 스포츠 경기의 모든 요소를 수치적 데이터로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는 사람. 경기 내용과 관련된 기록을 제공하여 관중이나 시청자가 경기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예측하도록 돕거나 선수나 감독이 다음 경기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도록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한다. 스포츠기록분석원은 스포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기록된 자료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통찰력과 꼼꼼함이 요구된다.

함께 성장하는 **스승 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 “뛰놀고 즐기며 스트레스 해소해요!”

※이 사례는 박혜영 천안새샘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새샘중학교(이하 새샘중)의 'Wee클래스'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내 캠프와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샘중은 전학 경험을 가진 학생이 많으며,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샘중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선배와 함께하는 스트레스 해소캠프'와 'Get out! 스트레스 캠페인'의 인기가 높습니다.



이러한 모든 미션 수행 과정은 3학년 학생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선후배간의 정도 쌓을 수 있지요.

오후에는 전체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눠 신문지 던지기과 뭉치기 게임을 실시합니다. 신문지 던지기 게임은 신문지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이를 잘게 찢어 상대방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 후 던져놓은 신문지 조각을 모아 더 큰 뭉치를 만드는 팀이 이기는 뭉치기 게임도 진행합니다. 신문지를 찢고 던지며, 친구들과 마구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해소 되는 것이지요.

캠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던 1학년 학생들이 또래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3학년 학생들이 캠프가 끝난 후에도 인사를 나누며 좋은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지요. 이런 경험을 한 1학년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자신이 주도적으로 캠프를 기획해보며 후배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요.

## 학교에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스트레스 해소 캠프'

새샘중 Wee클래스는 '선배와 함께하는 스트레스 해소 캠프'를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중학교에 갓 입학해 학교생활 적응에 스트레스를 받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캠프에 참여하길 원하는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요.

캠프 진행은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Wee클래스 소속 동아리 '새샘 해피플루(이하 해피플루)'가 맡습니다. 해피플루는 1학년 후배들이 즐길 수 있는 캠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하지요.

캠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시간은 모둠구성과 해피플루 학생들이 기획한 '런닝맨' 게임을 합니다. 가장 먼저, 1학년 학생들을 무작위로 5~6모듬으로 구성합니다. 이후 각 모듬은 모듬별 미션을 수행하는데,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같은 단어를 동시에 말해야 하는 '이구동성' 미션과 같이 친구간의 우정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미션에 참여하지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던 1학년 학생들이 모듬별 미션을 수행하며 협동심을 발휘하고, 점차 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

## 점심시간 활용한 '스트레스 Get out!'

학생들의 스트레스 줄이기 활동은 캠페인으로도 진행됩니다. Wee클래스 소속의 또 다른 동아리 '솔리언 또래상담사'가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시험기간의 점심시간을 활용해 'Get out! 스트레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인 1조 풍선 터트리기 △지압슬리퍼 신고 줄넘기 30개 하기 △몸에 만보기를 붙이고 30초 안에 만보기 80회 만들기 △홀라후프를 돌리며 미션 수행하기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부스에 학생들이 먼저 다가가 오늘은 무슨 행사를 하는지 묻고, 행사 시작 전에 미리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 대구지역 교사동아리 '배움과 나눔의 교육연극연구회'

# “교육연극으로 학생들의 소통·협동심·창의력 길러요”



교육연극에 대해 논의하는 '배움과 나눔의 교육연극연구회' 교사들. 대구 성명여중 제공

교육연극을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움과 나눔의 교육연극연구회(이하 교육연극연구회)'는 대구 지역 17명의 중·고교 교사가 모인 교사연구회 동아리다.

2011년 결성된 교육연극연구회는 수업시간에 교육연극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국어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화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표현법을 더욱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극놀이 방법들을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영어·사회 교과 교사도 동아리원으로 합류해 연극을 활용해 영어지문과 사회 현상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교육연극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최정연 대구 성명여중 교사에게 교사 동아리 운영 방식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 교사들이 직접 연기해보며 연극놀이 기획

교육연극은 학생들이 연극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통·협력·공동체·의식·창의력 등을 향상시키는 '과정 중심의 활동'이다. 이러한

교육연극의 효과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육연극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 교사들이 직접 모여 연극을 공부한다. 직접 몸짓을 통해 자기소개를 해보면서 몸을 활용한 표현법에 대해 배우고, 교과서 속 지문을 활용해 연극 대사와 장면을 구성해보는 것.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과서 속 인물이 되어 감정을 얘기해보는 'Hot Sitting', 학생들이 3인 1조로 역할극을 수행해보며 서로 소통하는 게임인 '너 뭐하니?' 등의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고안해냈다. 교사들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해본 뒤 학생들의 반응과 교사의 느낀 점 등을 공유하며, 연극놀이의 개선점을 찾는다.

학생들이 단순히 연극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수업이 끝나버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연극 과정을 설명문으로 적어본 뒤 이를 책으로 엮어보는 '메모리 북'을 제작하게 하거나, 활동에서 느낀 감정을 비유법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처럼 연극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사들은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등 연극을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교육연극연구회는 '메모리 북' 제작 조연을 구하기 위해 북아트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연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심리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심리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기도 했다.

최 교사는 "수업에 연극을 활용하려면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가해야 한다. 교사가 단순히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수업구조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교육연극연구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연극을 수업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면서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좀 더 많이 소통하고, 수업도 혁신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 직무연수로 동료교사에게 교육연극 전파

교육연극연구회는 매년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은 주변 동료 교사들을 위한 직무연수 활동도 진행한다. 일주일에 한번 3시간씩 동료교사들에게 수업에 교육연극을 활용하는 방법을 전달한 것.

교육연극연구회의 직무연수에서도 연극이 활용됐다. 교육연극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교육연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교사들과 함께 직접 연극을 해보는 방식으로 직무연수를 진행한 것. 연수에 참여한 교사 5인이 한 조를 이뤄 상상력을 발휘해 이야기를 만들어본 뒤 해당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갈등구조, 해당 상황에 어울리는 대사도 직접 정해 연극을 수행해봤다.

최 교사는 "연극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연극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야기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쁨을 느끼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연극연구회는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창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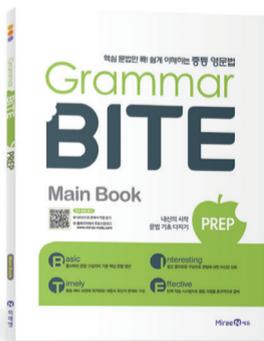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e메일\(edudonga@donga.com\)](mailto: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



# 핵심 문법만 BITE! 중등 영문법 한 번에 끝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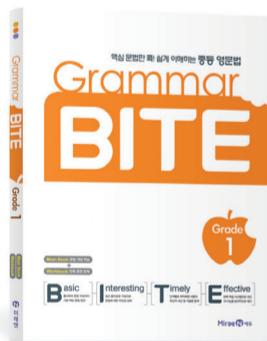
Grammar  
**BITE**

핵심 문법만 꼭! 쉽게 이해하는  
중등 영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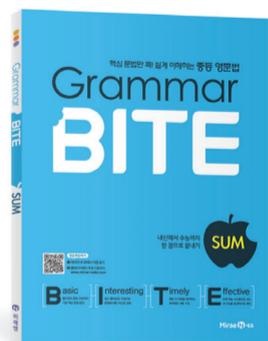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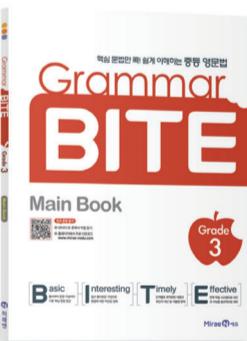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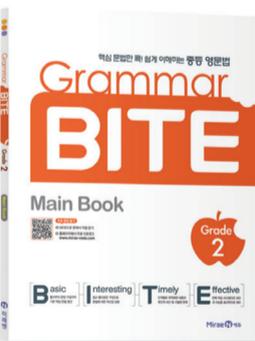
PREP

예비중을 위한  
개념부터 내신 대비까지  
영문법 기초 다지기



Grade 1/2/3

철저한 내신 대비  
서술형에서 수능까지  
중등 영문법 완성



SUM

예비고를 위한  
내신에서 수능까지  
영문법 한 권으로 끝내기